

민주 '과학벨트' 진상조사위' 놓고 갈등

비주류+광주 의원들 최고위에 제기키로

'호남 양보론' 주류측 "원점 돌리기엔 부담"

민주당 내 주류와 비주류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광주지역 의원들과 비주류측이 과학벨트 선정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진상조사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주류측은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18일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과학벨트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

서기로 했다.

또한, 박주선 최고위원도 오는 2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대한 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려 했으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조만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식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도 지난 17일 김영진 의원의 단식농성을 찾은 자리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에 공감을 표시

하며 진상조사위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과학벨트 총청권 유치를 당분으로 정하고 광주시의 유치 노력에 '호남 양보론'을 주장했던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주류 측에서는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 변경 등으로 전국을 분열시키고 심의 과정에도 문제점이 많지만 이미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위를 구성,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놓고 총청권 의원들과 호남권 의원들이 대립하는 것은 물론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강운태 광주시장이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하는 등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간과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무원칙에 대한 비판은 '속속될 것'이며 '광주시와 광주 정치권의 어울림을 입증해 이해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것은 미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정치권도 민주당 지도부에 진상조사단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균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 국회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 같은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선대 손홍래 교수·전남대 정현답 교수 연구팀

세계 첫 휘어지는 메모리 신소재 개발



손홍래 교수 정현답 교수

연구팀은 반도체인 사일룰 분자와 절연체인 '규소(Si)-산소(O)-규소(Si)' 분자를 섞어 독특한 구조의 고분자를 만들었다. 이 고분자는 두 종류 구성 분자의 전기적 특성 차이 때문에 전자에 영향을 미치는에너지의 준위가 급격히 달라지는 일종의 '우물' 또는 '함정'이 존재하고, 여기에 전자를 가둬놓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자를 저장하고 특별한 조건에 서만 지울 수 있는 '비활성 메모리'로서의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번에 개발된 고분자 물질은 슬리브와 같은 용매에 녹기 때문에, 휘어지는 기관 위에 임크처럼 찍거나 입히는 것이 가능하다.

/체험기자 chae@kwangju.co.kr

이주호 장관, 김영진 달래기

김영진 의원 '과학벨트' 단식농성 사흘째

이주호 장관 "광주 예산지원 확대방안 찾겠다"

호남권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맡았던 김영진 민주당 의원(서구을)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특히, 김 의원은 과학벨트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정략적이고 불공정한 심사에 대한 진상 규명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환의 단식을 계속 한다는 방침이어서 단식 장기화에 따른 건강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18일 김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단한 해도 빠지지 않았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하지만 단식농성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과학벨트 문제를 대충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광주시를 배제하기 위한 정략적 음모에 의해 진행됐다"며 "과학벨트 선정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주시가 지반 및

재해 안정성에서의 월등한 점수를 박탈당하지 않고 저렴한 지가 등 부지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면 과학벨트 입지 평가에서 1위를 차지, 본원을 유치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김영진 의원의 단식농성장을 찾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광주시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실무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파악, 면밀히 검토 보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과학벨트와 관련, 광주시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일 한나라당 이인기(경북), 서상기(대구) 의원들을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과학벨트 심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예산 증액을 여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동욱기자 tuim@

과학벨트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불공정 불공평한 과학벨트 평가, 짜맞추기식 정략적 심사에 대한

국회의원 김영진 항의단식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반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김영진(오른쪽) 의원이 18일 새벽 농성장을 찾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장단 농성 해제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반발해 지난 16일 오후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광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8명이 만일에 단식 농성을 풀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가 대통령 사과와 관련 책임자 사퇴요구, 행정정보공개와 재심사 청구를 요구하는데 힘을 모아 대처할 것을 권유하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날 단식투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조선기능인력 훈련생 전원 채용된다

전남도, 지역 업체 등과 산학관 업무협약

전남 조선 관련 업체들이 도내 조선인력 양성기관을 수료한 교육훈련자들을 전원 채용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8일 한국폴리텍V대학, (제)전남테크노파크, 목포고용센터 등 조선인력 양성기관과 주유일 등 조선 관련 26개 기업체와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행·재정적 협조와 시설·장비·교육을 상호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교육훈련 수료자들을 지역 내 조선 관련 업체에서 전원 채용하기로 했다.

전남지역 조선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지난 4월 전남도가 개최한 '전남 조선 산업 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뒤 구체화됐으며 한국폴리텍V대학 목포캠퍼스와 전남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아 가능인력 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오는 30일까지 제1기 조선기능인력 훈련생을 모집하며 지원 자격은 전국 남·녀 누구나 가능하고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국폴리텍V대학에서 훈련을 받는다.

희망자는 한국폴리텍V대학 목포캠퍼스(061-450-7241) 홈페이지나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2014년으로 2년 연기

현재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만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2012년에서 2014년으로 2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최근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오래 써온 주소 체계를 바꾸면서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쓰는 기간을 5개월만 두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F1 케이블TV서 생중계

세계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이벤트인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 대회가 국내 케이블TV 스포츠채널에서 생중계된다.

18일 F1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케이블TV의 스포츠 채널인 SBS ESPN은 스페인에서 20일부터 3일간 열리는 '카탈루냐 그랑프리'부터 올 시즌 F1대회 모든 결선 경기를 생중계한다.

스페인 그랑프리는 올해 20개 대회 중 5번째 라운드로 치러지며,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랑프리도 SBS ESPN에서 중계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불량볍씨' 전남 피해농가 실태파악 착수

전남도, 면에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정부가 보급한 종자를 공급받아 밭이 자연과 불균일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호흡벼'를 비롯 정부 보급종을 공급받아 이미 침종(씨담그기)했으나 육묘에 따라 대처할 것을 권유하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날 단식투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읍·면에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이를 농가에 대해 종자대비와 상토 비용의 경우 100% 보상해 줄 예정이며 인건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피해농가의 종자 소요량을 조사해 보령농가 보유종자 알선해주거나 탑라이스 수매벼와 정부비 죽 매입벼 등을 대체종자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경매사이트 dok2000@kwangju.co.kr

최근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공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5월 20일(금) 부동산 투자 전략 세미나

재테크 무료특강

최근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공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5월 20일(금) 부동산 투자 전략 세미나

재테크 무료특강

최근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공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 전략 세미나

</